

# 백승준 행정학 강의계획서

“최근 기출 경향과 출제 흐름을 반영하여 정리한 자료를 통해  
심화이론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와  
고득점을 위한 차별화된 답안작성 연습이 병행되는,  
시험을 위한 행정학 강의!”

■ ■ 담 당 **백 승 준** (유민봉 한국행정학 개정위원)

■ ■ 강의일정 2017년 12/9(토) ~ 12/25(월), **총 14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 실강반에도 필기자료가 제공됩니다.

1) 시험이 없는 날 : 1시 40분 ~ 5시 10분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20분

■ ■ 강의교재 ▶ 교재 : 행정학 WORKBOOK(실비제공) + 2순환용 심화자료집(실비제공)

■ ■ 강의특징 1. 답안작성능력 향상

시험장에서 수험자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답안입니다. 답안작성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시험과 이에 대한 강사의 자세한 강평이 진행됩니다.

2. 기출을 중심으로 응용력 향상에 중점

최신이슈를 통해 변화하는 출제패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도록 합니다.

3. 문제해결능력 배양(자기학습능력 향상)

2순환 이후부터는 강의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자기학습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행정학 및 정보체계론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백승준 행정학<http://cafe.daum.net/newgovernance>』에 무엇이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12월 9일(토)	<b>【행정학의 주요접근】</b> 행정학은 행정현상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그 모두를 아울러서 하나의 지식화 작업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변수 내지 변수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 때 일정한 지식제조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지식제조공정을 일반적으로 접근방법 또는 연구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간변수에 대한 탐구로서 행태과학, 환경변수에 대한 탐구로서 체제론, 그리고 제도·구조변수의 탐구로서 신제도주의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제 2 회	12월11일(월)	전체맥락을 공부하면서 2순환 과정에서는 특히 제도변수에 대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됩니다. 수험의 중요소재인 『신제도주의』의 맥락에서 정치경제학적 제도연구에 대해 심화학습을 진행합니다. 특히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 부분에서 내용을 심화하도록 합니다.
■ 제 3 회	12월12일(화)	<b>【공공가치, 행정철학】</b> 공공가치(public value)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행정학은 경험적 실증적 지식뿐만 아니라 당위적 규범적 지식도 필요하므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됩니다. 행정철학, 공공가치나 행정이념 윤리적 기준 등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행정의 행위적 지향점으로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꾸준히 출제되고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분야입니다. 정치철학과 윤리학적 기반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 제 4 회	12월13일(수)	<b>【변화를 위한 정부조직의 전략적 관리】</b> 전략적 관리에 대한 업데이트 입니다. 전략적 관리에 대해 이전 순환보다 실전적 내용을 학습합니다. (진단·혁신관리의 내용 보강/ 전자정부 포함) 과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을 보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하나의 틀 속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개 그때그때의 중앙정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각 제도별로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준비 과정 없이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하에 선진국 공공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리수단들을 단순히 모방 또는 복제하는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결국에는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거나 운영이 호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행정관리의 개선 내지는 전환에 있어 출발점이자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기획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리수단들을 도입해왔다는 것은 그간의 행정개혁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부문의 비능률성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개혁 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전략관리를 학습합니다.
■ 제 5 회	12월14일(목)	<b>【관료제개혁과 거버넌스】</b> 전통적인 관료제와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거버넌스를 다룹니다. 거버넌스를 완벽 마스터 하지 않고서는 수험기간 내내 불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네트워크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정학적 시각에 맞게 진단과 처방으로 논의한 B. Guy. Peters의 거버넌스 등을 연구함으로써 총론적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 제 6 회	12월15일(금)	
■ 제 7 회	12월16일(토)	

■ 제 8 회 12월18일(월)

【정책론/정책수단론】

정책학은 선택과목으로 독립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학에서 다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및 사회영역의 개입은 정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본적 속성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정책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물 정도로 이제 정책은 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정책은 장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련의 행동기준이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학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학적 내용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 제 9 회 12월19일(화)

【인사행정론】

정부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분화되어진 수많은 직무가 다시 상호 연관성을 갖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조직목표의 달성은 개별 공무원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인사행정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공무원 각자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사행정의 핵심은 바로 사람과 직무를 통합시키는 과정이고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적재적소(適材適所)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행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제 10 회 12월20일(수)

■ 제 11 회 12월21일(목)

【조직론】

조직시스템은 모든 결정과 집행 그리고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며 틀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는 조직이 사회와 다른 구성요소들(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방체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은 밖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으로는 구성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유기체적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정부와 같이 대규모 조직은 구성원이 담당하는 개별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들 간의 업무관계를 구조화하여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수행은 개인들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포함한 조직의 실제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직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사항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다보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일선 대학에서 나가는 조직론 관련 커리큘럼은 조직행동론과 조직구조론입니다.

우리 수업 중에도 이런 부분을 모두 다루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조직문화, 갈등관리도 이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제 12 회 12월22일(금)

■ 제 13 회 12월23일(토)

【재무행정론】

전통적 재무행정이론과 재정개혁 및 혁신의 모든 부분을 아우릅니다. 예산관련 유관부처의 자료를 취합하여 전통적인 이론과 최신이슈를 완벽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 제 14 회 12월25일(일)

특히 새정부 재무행정관련 이슈에 대해 최신자료등을 검토하여 실전시험에 대비합니다.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